

“한글은 우리말과 우리글의 하나됨”

특별기고...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란다

이 세상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사람들은 말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알리고, 남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생각도 알게 된다.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되며, 그 문화가 항상 발전된다. 말이 없다면, 사회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길이 없다. 인류학자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적어도 1백만년 내지 2,3백만년 된다고 하는데, 말이 인류 최초의 조상때부터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은 기원전 4천년 경의 수메르인 비문으로 지금부터 6천년의 역사 밖에 없으나 말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옛날 우리 겨레는 우리말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글자가 없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우리 고유의 글자를 쓰고 있었던 듯한 흔적이 있다고 하나, 그 기록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의 내용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나라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의 생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한자는 중국인들에 의하여 중국어를 글자로 표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형문자이다. 그러므로 한자의 구조는 당연히 중국어를 본래의 구조에 따라 나타내지 못한다. 한자와 한문은 중국어의 고립어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중국어는 ‘분석적 언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다루어지는데, 중국어에서 한 자는 한 낱말이 되며 이것은 어근임이 원칙이다. 중국어와 같이 분석적인 언어, 고립어는 형태론적인 문제는 경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말과 같이 어근에 어미가 붙어 활용을 하거나, 체언에 조사가 붙거나, 접사가 어근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일이 없고(이것을 형태론적인 것이라 한다), 약간의 허사, 예컨대 **하, 焉, 於** 따위가 쓰인다. 우리말의 경우 조사가 **이, 를, 만, 까지, 는...**과 같이 발달하였고, 어미도 **없, 겠, 시...** 등 다양하여 여러가지 문법적 관계와 의미를 나타내는 점과 중국어는 크게 구별된다.

한자가 우리에게 전래된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삼국에 이미 한자가 사용되었음은 확인된다. 우리말을 기록하기 위해 한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은 말과 글의 이중구조의 고통에서 살았음은

명확한 일이다. 엄청난 한자의 글자와 뜻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일과 함께 우리말과 아주 저임세를 달리하는 한문의 구조 사이의 거리를 체감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말에 있는 어미나 조사는 중국어를 나타내기 위한 한자에는 없고 이들은 낱말의 위치나 문맥에 의해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임에 비해 중국어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임에 따른 우리말과 한문사이의 거리도 한자와 한문으로 우리말을 나타내려고 할 때 만나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중국어 즉 한문의 구조가 아닌 우리말의 구조를 위주로 하여 이중 언어 구조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어휘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말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居柒夫 或云荒荒**’에서 ‘거칠’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나타내었고, ‘**蘇屠世 或作楚世**’

과 우리글은 하나됨을 이룬 것이었다. 우리말을 소리나는 그대로 우리글로 적게 된 한자를 이용하여 한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 수많은 한자를 외워 쓰지 않고도 글자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일 시에 해결되었다. 말과 글의 일치, 한자의 구조와 우리말의 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우리글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선조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창제의 동기가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에 근본하였다고 또 대외적으로 주체성을 가지며, 문화의 축진을 의도하였다는 점에 한하지 않는다. 우리글 한글은 우리말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글자라는 점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가치를 높이 받는다. 한글은 음소(또는 음절)를 적는 글자이

면서 동시에 음절을 적는 글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로마자가 세계 어느나라의 말이라도 적을 수 있듯이 한글은 어느 나라의 말도 적을 수 있어, 발음부호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소리 글자이다. 이러한 소리글자이며 동시에 음소 글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음절들을 적지 않고는 한글로써 (한글 자모의 수는 소문자와 대문자 합쳐 26개)를 적을 수 있다. 또 한 글은 음절글자인데 이것은 로마자와도 구별된다. 우리는 바람이 불어’를 ‘바람이 부러’로 쓰지 않고 ‘바람이 불어’라고 하여 실제의 발음과는 달리 각 단어의 형태소를 음절을 경계로 하여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글이 음소글자이지만 동시에 음절문자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같은 소리글자인 로마자에서는 이와같은 표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음절의 표시로서 실질형태소 바탕과 문법형태소 ‘이’의 구별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우리말을 나타내에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슬 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해 온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가운데 우리들은 문화유산에 대하여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 있다. 거북선, 금속활자, 고려자기 등 비롯한 많은 유산들이 그 자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 과거에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 외에 가치를 갖지, 그것을 지금에 순간에도 활용하고 미래에도 끝없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한글은 지난 오백여년간 꾸준히 쓰여왔고 지금도 쓰이며 앞으로 쓰여야 할 우리의 글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한글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한글의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문화

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한글을 높이 기리는 한글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마음은 온 국민이 함께 나누고자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던 것이다. 요즘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되어있는 ‘한글날’을 기념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다.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든 기념일이든 한글의 소중함을 높이 기리려는 의지이다. 그러나 많은 기념일들이 단순히 관계자들의 행사에 그치고 마는 현재의 실정에서 보아, 한글날을 기념일로 낮추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으뜸인 우리글의 소중함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결과로 되지는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한글날은 단순히 한글의 창제만을 기리는 것이 아닌 우리 문화유산을 받드는 것보다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여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겨레다운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길이다. 우리 말과 글의 하나됨을 감사하는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기혁
(문리대교수·국어학)



하면, 중앙집권화한 민족국가의 형성, 산업화, 인간해방의 이념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인간해방의 이념은 국가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설립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위적인 국가(artificial state)이다. 그리고 개인의 동의에 의해 국가를 설립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질서와 안정의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결국 개인은 국가에게 어떤 효용을 발한 것이다. 이때부터 국가의 합법성(legitimacy)을 그 효용성에서 찾게 되며, 국가는 개인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배경으로 한 근대국가는 중세의 지방적 독립성이 파괴되는 통합운동의 산물이기도 하며, 중세의 왕국(realms)과 제국(empire)의 붕괴로 국

근대국가의

개인의 수단을으로서

박완규 <대학원사학과·정치학>

가(state)가 출현하게 되는 분열운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비롯된 근대국가가 이전의 정치적 체제들과 구별될 수 있는 점으로는 먼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앙으로의 권력집중이나 중앙 권위체에 의한 폭력과 외교의 독점, 주권의 절대성과 불가분성이 그 예가 된다.

특히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은 엄청난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면서 개인에 대한 안전보장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짐에 따라 가능했다. 이것은 치안 입법의 발달로 인해 근대전과 같은 권력집중의 자력구제 원칙이 점차 소멸된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전의 정치적 체제와의 또다른 차이점은 근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적인 성취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근대국가 내에서는 재산과 자본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거처서 자연의 재주지되어 기술발달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그 결과 해외시장의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말·글의 일치, 말과 생각의 동일화 가속

법정 ‘한글날’ 계속 지켜 의미성 살려야

‘에서 ‘발그레’라는 우리말을 나타낸 것은 그 대표적 보기이다. 한자를 이용하였지만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문장을 표현한 것으로 임신서기석(壬申書記石)이 있다. 이것은 두 친구가 맹세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는 한문식으로 한다면 ‘**誓天無負**’이어야 하겠지만, 임신서기석에는 ‘**過失天無**’라 하여 우리말의 어순으로 나타내었다. 한자나 이두에서도 가능하면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한자, 한문에는 없는 우리말의 문법 형태소를 나타내기 위해 ‘**尾**’(에), ‘**伊**’(이), ‘**爾**’(은), ‘**尼**’(하니), 등이 동등선상에 쓰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자로서 우리말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시도는 실패하고 우

과 우리글은 하나됨을 이룬 것이었다. 우리말을 소리나는 그대로 우리글로 적게 된 한자를 이용하여 한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 수많은 한자를 외워 쓰지 않고도 글자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일 시에 해결되었다. 말과 글의 일치, 한자의 구조와 우리말의 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우리글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선조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창제의 동기가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에 근본하였다고 또 대외적으로 주체성을 가지며, 문화의 축진을 의도하였다는 점에 한하지 않는다. 우리글 한글은 우리말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글자라는 점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가치를 높이 받는다. 한글은 음소(또는 음절)를 적는 글자이

면서 동시에 음절을 적는 글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로마자가 세계 어느나라의 말이라도 적을 수 있듯이 한글은 어느 나라의 말도 적을 수 있어, 발음부호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소리 글자이다. 이러한 소리글자이며 동시에 음소 글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음절들을 적지 않고는 한글로써 (한글 자모의 수는 소문자와 대문자 합쳐 26개)를 적을 수 있다. 또 한 글은 음절글자인데 이것은 로마자와도 구별된다. 우리는 바람이 불어’를 ‘바람이 부러’로 쓰지 않고 ‘바람이 불어’라고 하여 실제의 발음과는 달리 각 단어의 형태소를 음절을 경계로 하여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글이 음소글자이지만 동시에 음절문자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같은 소리글자인 로마자에서는 이와같은 표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음절의 표시로서 실질형태소 바탕과 문법형태소 ‘이’의 구별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우리말을 나타내에 있어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슬 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해 온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가운데 우리들은 문화유산에 대하여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 있다. 거북선, 금속활자, 고려자기 등 비롯한 많은 유산들이 그 자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 과거에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 외에 가치를 갖지, 그것을 지금에 순간에도 활용하고 미래에도 끝없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한글은 지난 오백여년간 꾸준히 쓰여왔고 지금도 쓰이며 앞으로 쓰여야 할 우리의 글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한글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한글의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문화

모습을 온전히 간직해 온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가운데 우리들은 문화유산에 대하여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 있다. 거북선, 금속활자, 고려자기 등 비롯한 많은 유산들이 그 자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유산 가운데 과거에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 외에 가치를 갖지, 그것을 지금에 순간에도 활용하고 미래에도 끝없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한글은 지난 오백여년간 꾸준히 쓰여왔고 지금도 쓰이며 앞으로 쓰여야 할 우리의 글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한글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한글의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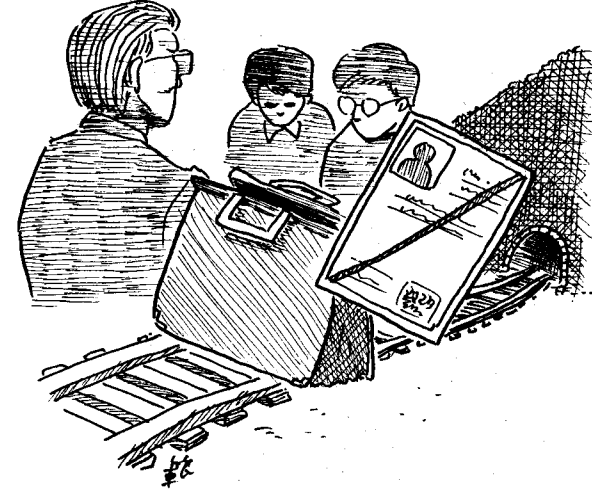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과거에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 외에 가치를 갖지, 그것을 지금에 순간에도 활용하고 미래에도 끝없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비해 한글은 지난 오백여년간 꾸준히 쓰여왔고 지금도 쓰이며 앞으로 쓰여야 할 우리의 글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한글이 없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한글의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한글의 고마움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한글의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문화

꾸지람속에 얻은 신뢰

수필

5월의 노래



“그날의 사건은 대학생의 금지와 가치관에 대해 나 자신을 바꾸어 놓았다”

했지만 마음을 가라 앉히고, 인상을 낼 수 있는대로 겸약하게 해서 그쪽의 신분을 먼저 보여주 고 내 가방을 보여 달라고 청하는 게 대의 입장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쳐다보더니 알았다며 신분증을 가져다 한군인에게 갔다. 나에게 가방을 열어 보라고 요구했던 그 군인은 전두환할도 아닌 보통사람이었다. 잠시 후 그 군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멀찌감치 앉아서 신문만 보고 계시던 한 중년 신사

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 시더니 다짜고짜 두 군인에게 당 신들이 무엇인데 여기서 행패나려 군번을 적고 이름을 적으라 하자 당황한 두 군인은 마침 열려 있는 문으로 황급히 뛰어갔다. 한사람은 당하는 문에 발목이 걸려 넘어 졌지만.

그 중년신사는 도망치듯 달아 난 그들에게 주었던 시선을 우리 에게로 돌리더니 큰 연성으로 “나 대학교수인데 자네들은 대학 생으로서 금지나 주체성도 없고

누군가 그랬던가 君師夫는 一體라고.

김향태
<무역>

수원캠퍼스 노래동아리 ‘소리산하’가 창작노래곡 ‘전진하는 노동자’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87년 대투쟁 이후 현시기 노동현장의 파업과정을 묘사하면서 노동현장의 모습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자한 노래곡으로서 1막은 노동현장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소리산하 창작곡 ‘다시 일어나 싸우리’, ‘전진하는 노동자’가 불려진다. 이어 2막에서는 태평곡속의 노동투쟁기가 노래와 함께 펼쳐 진으로써 막을 내리며, 공연일정은 오는 22일 3시30분 1호관 시청각실에서 막을 여정이다.

소리산하 창작노래곡 ‘전진하는...’ 공연

북한자료 전시할 임시북한관 설치 각종논문, 사진 선보여

대통령 기간동안 서울캠퍼스 공대앞 돌다방에 북한관을 설치하여 북한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될 예정이다. 총여학생회가 준비한 북한여성사진전, 지리화국의 평양모형도 를 비롯하여 북한내, 각종 남북관계 비교연구 논문이 선보일 이 번 전시회를 통하여 북한의 실질적 모습을 좀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테이프도 목이 쉽니까?

물론입니다. 녹음된 것을 원음 그대로 재생하지 못한다면 “테이프가 목이 쉬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와 달리, 테이프는 한번 목이 쉬어버리면 유감스럽게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테이프가 목이 쉬는 것은 첫째, 테이프 표면에 입히는 자성체입자가 균일치 않아 처음부터 소리가 고르지 않은 경우 둘째, 온도나 습도, 사용횟수로 인해 음색이 변형되는 경우 셋째, 메커니즘(Mechanism)이 정밀하지 않아 테이프가 엉키거나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테이프를 골라 쓴다면 별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스마트”는 첨단기술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되는 “목이 쉬지않는” 좋은 테이프이므로 음악이나 회화를 언제나 원음 그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MAT
SUNKYONG

SK 신성매그네틱(주)
☎ 판매부: 279-1611 / ☎ 서비스: 275-3531